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이야기

“ 다시 예술가로, 다시 예술현장으로 ”



다시 예술가로, 다시 예술현장으로

아찔했던 사고,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
고질적인 몸의 통증.

모두 이 땅의 예술인들이 마주하는 그늘입니다.

이제
아픈 몸으로 무대에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치료비 지원부터 휴업 급여까지
예술인 산재보험이 있으니깐요.

예술인 산재보험은
아티스트에게 또 하나의 자산이자
정신적인 든든함입니다.

끝까지 예술인의 삶에 함께 하겠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이야기

“ 다시 예술가로, 다시 예술현장으로 ”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제도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운영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보험사무대행과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의 특징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높아 민간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생명보험 + 상해보험 + 실비보험 + 여행자보험의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치료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휴업급여와 장애 등급 판정시 '고등학교 학비 지원'(유족, 장애1~7급), '대학 학자금 용자'(장애1~9급), '생활안정자금 용자'(장애1~9급)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목차

예술인이 직접 말하는 예술인 산재보험 이야기

01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교통사고, 예술인 산재보험이 아니었다면 극단대표&배우 유학승	10
정신적인 든든함, 또 다른 자유로움을 준 산재보험 무용수 김동현	16
잡은 부상과 아찔했던 순간들, 작품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던 힘 미술작가 장성진	20
평온한 일상에서도 사고는 존재합니다. 다시 기타를 잡기까지 가수, 음반제작자 최찬윤	26
배우는 무대 아래에서도 다칠 수 있으니까요 연극배우 이정국	32
실시간 공연의 변수, 사고로 이어진 돌발상황을 극복하며 공연예술가 허성호	36
사랑하는 음악을 지속할 수 있었던 든든한 지원군 뮤지션 신보섭	40
붓을 멈춰야만 했던 시간, 마음 놓고 보냈던 재할 기간 서예가 박영제	46
배우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자산 배우 이다해	50
잠시 빼놓아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예술의 힘 가야금연주자 김아미	56

예술인 산재보험, 이렇습니다.

02

산재보험의 혜택	62
산재보험 가입방법	64
산재청구 방법	66
산재청구 절차	68
산재청구 조건	72
불승인의 경우	73
각종 신청서식	74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이야기**

01

예술인이 직접 말하는
예술인 산재보험 이야기



예술인 신재보함 혜택 이야기

선물 같은 30년, 더디어도 단단하게
극단 대표 & 배우 **유학승**

“ 누군가 내게 ‘연기’란 어떤 의미인가? 라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30년 차 배우이자, 극단 대표 유학승입니다. ”

그동안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직업을 가져보거나 결눈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햄릿’과 ‘레미제라블’부터 소극장 공연까지, 극의 종류를 따지거나 역할의 크기와 상관없이 저에게 주어진 무대는 늘 열정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공연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로 극단을 차렸고, 지금은 극단 대표이자 배우로 몸담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길을 걷는다는 이유로

사람은 누구나 시간과 겨루며 살아갑니다. 저는 시간을 버티어 내는 일에 멧집도 생겼고 사실 이력이 난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의 계절만큼은 유독 처절했습니다. 극단을 운영하기에 1년 내내 비어 있는 연습실, 창고비는 나가야 했고, 교육비가 나가야 하는 어린 두 딸을 둔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몫까지 무거웠지요. 어쩌겠습니까. 모두 어려운 시절, 들어오는 건 없이 여기저기 빚을 지며 사는 시간이었죠. 그래도 내가 선택한 예술인의 길이니까 적당한 타협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물론 연극이 배고픈 직업이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부유했던 적은 없었고요. 그저 무대가 좋고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행복해서 30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경제적인 부분은 연극배우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술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늘이랄까요. 오히려 먹고 사는 일보다 더 고민되는 것은 여전히 역할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배우의 삶

배우들은 늘 작품에 100%를 다 쏟아부어요. 그게 아무리 작은 역할이고 아무리 작은 출연료라도 정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올인하기 때문에 부상도 잦은 편이죠. 가벼운 타박상은 일상다반사이고 골절을 당하고도 무대에서 뛰어다녀야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기 전까지 다치면 사비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출연료를 받아서 치료비로 다 쓸 정도였으니까요. 사다리에서 낙상한 적도 있고, 가벼운 부상은 말도 못 할 정도로 많이 입었죠. 서글퍼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교통사고 예술인 산재보험이 아니었다면...”



배우 유학승

2019년 12월. 지방 공연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참고로, 우리 가족은 모두 연극배우 출신입니다. 아내는 극작가이자 연출, 배우를 겸하고 있고, 두 딸도 재능을 이어받아 일찌감치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온 가족이 차에 탄 상태였는데 고속도로 나들목 근처에서 길 위에 얼음이 얼어 있었나 봐요. 블랙 아이스로 차가 미끄러졌는데 가드레일을 심하게 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차가 반파될 만큼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운전했던 저는 왼손과 갈비뼈 5개 골절, 조수석에 탄 아내는 뇌진탕으로 당시에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을 잃었고요. 어린 딸은 영구치 앞니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가족들 각자 서로 다른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하늘이 무너지더군요. 정말 아찔했던 사고였습니다. 수술과 입원, 통원치료까지 정말 긴 시간의 재활을 했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사실 예술인 산재보험 신청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단 보험이란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고, 성격상 번거롭기도 했고, 뭔가 예술인의 자존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혜택을 받았던 지인들이 예술인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귀찮아서 안 하려고 했죠. 짐작건대 과정도 복잡하고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지속적인 권유에 마지못해 신청했지만 서류를 제출했더니 생각보다 빨리 처리가 됐습니다. 신청을 안 했다면 정말 후회할 뻔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이 아니었다면

수술과 입·퇴원 후, 재활할 때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비로 했다면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돼서 계속 재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비용 부분이 해결되니까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재활비에 이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휴업 급여였습니다. 원래는 수입의 70%를 지급해주는데 예술인들은 고정수입이 없으니가 산재보험 가입시 선택한 기준보수액과 등급에 따라 금액을 받게 되더라고요. 기간은 주치의의 소견과 공단의 결정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입니다.

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았는데 중간에 요양 기간 연장 신청을 한 상태였어요. 연장 심사도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 낫지 않았을 경우 재활 치료를 호소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심사서류를 내게 되고, 승인되면 일주일 안에 처리가 되더라고요.

연장 후 5월까지 휴업 급여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아픈 몸을 이끌고 무대에 오르지 않아도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면 통증을 참고 무대에 서야 했을 테니까요.

“ 무대에 오래 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예술인 산재보험 ”

아직도 많은 배우가 몸을 아끼지 않고 무대에 오릅니다. 젊을 때는 다쳐도 아픈 줄도 모르고 참아가며 일을 했지만, 모든 것은 누적이 되어서 훗날 더 큰 아픔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직업병처럼 여기저기 아프고요. 다치면 잘 낫지도 않고 회복이 느리더라고요.

하지만, 연기가 좋아서 힘들고 외로운 이 길을 걷는 동료 배우님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저도 간과하다가 30년 만에 크게 다치고서야 깨달은 일이니까요. 모두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해서 안전하게 무대에 오를시길 바랍니다.



경이로운 몸의 변주곡

무용수 김동현

“ 몸이 느리게 피어날 때,
모든 것은 의미있는 춤이 됩니다. ”

무대 위에 서면 굳었던 몸이 조금씩 피어납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비로소 춤이 되죠. 오직 그 순간 호흡과 에너지에 집중하다 보면 충만하면서도 역동적인 희열에 빠집니다. 그런 저를, 세상은 ‘무용수’라고 부릅니다.

‘무용수 김동현’이라는 이름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동안 안성수 픽업그룹과 국립현대무용단 등에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숨무브먼트에서 헬든크라이스를 기반으로 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든크라이스라는 용어가 낯설 텐데요 몸의 움직임들 통해서 신체를 자각하고, 셀프 이미지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술가의 또 다른 말, 프리랜서

모든 일에 행, 불행이 공존한다고 하지만 프리랜서의 삶도 절반은 행복하고, 안타깝게도 절반은 불행한 것 같습니다. 모든 프리랜서가 가진 장점점이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자유로운 대신 덜 안정적이며, 가장 치명적인 건 상처를 입으면 활동이 제한되는 부분입니다. 몸을 쓰는 무용수마다 고질적인 통증이 있는데요, 저는 왼쪽 어깨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왼쪽 어깨의 잦은 부상 및 치료와 재활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요. 그럴 때마다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온 예술인 산재보험

아플 때마다 사비로 고비용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그러던 차에 한창 어깨 치료를 하던 중 무용단에서 예술인 산재보험을 단체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해 들었을 때 예술인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이 상상이 잘 안 됐거든요. 그만큼 평소에 보장 받지 못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 좋은 혜택이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입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많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입 직후 발생한 사고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공연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동료의 발에 부딪혀서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였지요. 골절이었기에 수술 및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비보험도 있었지만, 제 경우에는 예술인 산재보험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덕분에 수술과 입원까지 걱정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큰 도움에 감동한 시간

코를 다쳤기 때문에 수술 후 특별한 재활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일을 쉬고 3주 정도 휴식이 필요했죠. 결코 짧은 휴식은 아니었어요. 3주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쉬는 동안 수입도 전혀 없고,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외에도 휴업급여가 지원돼서 덕분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 정신적인 든든함,
예술인 산재보험은
저에게 또 다른
자유로움을 주었습니다. ”

많은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처럼 몸이 전부인 무용수들에게는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고질병인 어깨는 아프고,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를 사고에 대해서는 늘 조심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전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업의 몰입도가 더 깊어진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 정신적 든든함이 예술인으로서 정말 큰 위안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무대 위에서 몸에 대한 깨달음이 삶으로 퍼져나갈 때 제 일이 정말 좋습니다. 빨리빨리만을 요구하고, 급변하는 요즘 시대에 천천히 온전하게 자신의 몸을 살피기가 힘들거든요. 더 노력수록 더 춤을 잘 출 수 있으니까요. 느리게 한 동작 한 동작, 몸을 움직이고 집중하며 느낀 것을 공연이나 수업 등의 형식으로 주변과 나눌 때 보람이 크고, 매우 뿌듯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한 산재보험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듯이 많은 예술인이 산재보험을 통해서 자신을 잘 살피며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술과 삶의 균형을 고민합니다”

미술작가 **장성진**

“ 이미지를 드로잉으로 구현하고,
다양한 오브제로 표현하는
미술작가 장성진입니다. ”

사람들은 ‘미술’하면 으레 어렵게 생각합니다. 실은 멈춰있거나 움직이는 자연의 모든 것이 미술의 도구입니다. 가끔 ‘미술을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생각하곤 합니다. 긴 세월 동안 그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요.

작업을 통해서 만나는 세상은 신나기도 하고, 때론 고독하기도 해요. 여러 기관과 프로젝트성 협업을 하기도 하고 또 혼자만의 작업을 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되돌아보건대 미술작가 외의 삶은 사실 생각 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늘 만들고 그리기를 좋아했고, 너무도 당연하게 예술인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술가적인 사고, 일상이 곧 예술입니다.

작품과 일상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모든 순간이 작품과 연결이 되거든요. 영감이라고 해서 특별한 순간에 받는 건 아닙니다. 일상의 사소한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미술적인 사고를 하는 편인데요, 일종의 직업적인 습관입니다. 그리고 순간의 느낌들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드로잉이나 글을 쓰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식당의 달력 한 장이라도 얻어오거나 당시 바닥에 있던 돌멩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그때의 느낌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해 두는 식이죠. 그리고 다시 그 매개체를 봤을 때 감정이 고스란히 재현되는 걸 느껴요.

제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건 평상과 돌, 또 균형이라는 개념인데요. 평상은 가구의 개념인데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매력적이고, 돌도 그 안에서 여러 모양을 발견하기도 하고, 무한하게 열려 있어요.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결과 자체보다는 작업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소품들이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어 유기적으로 역이는 큰 구조를 이루는 것. 그 과정 또한 예술의 하나이고, 제가 기쁨을 느끼는 지점이거든요.



아찔했던 순간들, 다시 작품 앞에 서기까지

평소에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재료들은 돌, 목재, 철재와 같은 전통적인 재료들인데요. 아무래도 부피가 있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가는 건 사실입니다. 무게 때문에 허리,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도 있고요.

또한 목재, 철재 오브제를 개인으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우니까 일정이 잡히면 타이트하게 소화하려는 경향도 있었어요. 작업하다가 실제로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말, 조각 작업의 마감 과정인 샌딩을 할 때였어요.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디테일에 신경을 쓰다가 철 가루가 눈에 튀어서 박힌 거죠.

눈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당장 긁어내는 시술을 해야 했어요. 충분히 치료를 받았지만 눈에 점 같은 게 보이거나 시력 저하가 동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상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불편한 감은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 꽤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 잦은 부상과 아찔했던 순간들, 예술인 산재보험 덕분에 작품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죠. ”

물리적으로 팔에 힘을 가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팔에 피로도도 누적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다가 ‘테니스엘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테니스엘보는 팔꿈치 과사용 증후군의 일종으로, 팔꿈치 관절과 팔에 무리한 힘을 줘 팔꿈치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테니스를 많이 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테니스엘보라 이름이 붙여졌다고 알고 있어요.

이 병의 처방은 사실 팔을 안 써야 하거든요. 최대한 관리를 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작품을 하는 사람이기에 팔을 전혀 안 쓸 수는 없었습니다.

아픈 오른팔을 못 쓰니까 왼손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왼손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2020년 1월 말에도 작품을 운반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무용팀하고 작업할 때 쓰이는 소품이었는데 철로 만든 작품이었거든요. 철재 작품 크기가 1m가 넘는 부피였는데, 들고 내려오다가 그만 넘어진 거죠.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는 바람에 오른쪽 중지 손가락 골절을 당했어요. 치료 끝에 골절은 나았는데, 그동안 밀린 작업을 하다 보니 무리를 했는지 다시 같은 부위의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당시 작품 마감 중에 샌딩기로 하다 보니까 손에 전달되는 진동이 심했거든요. 약해져 있던 오른쪽 팔을 무리해서 쓴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붓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파열되었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더군요. 수술 후 2주 정도 입원했구요. 아직도 치료 중이고, 재활을 꾸준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몸은 아프고, 마음은 급하고, 힘든 시기였어요. 다행스럽게도 치료 과정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한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의 상당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요양급여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의 후, 자체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주셨고, 모든 것을 놓고 쉬어야만 했던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았던 예술혼, 또 다른 소통 방식을 고민하게 되다

작업의 특성상 여러 번 다치다보니 고민이 많아지더군요. 물론 당장의 작품 활동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몸을 좀 아끼게 됐죠.

또한, 시대에 맞게 가벼운 영상 매체를 활용한다거나 작업을 할 때도 일정한 템포를 여유 있게 가는 방식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세상과의 협업, 더 많은 예술인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

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예술인 파견사업을 하면서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해 알게 된 경우고요, 2013년 7월에 예술활동증명이 된 이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이 아니면 작가가 사회적인 참여를 할 기회가 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분에 여러 기관을 알게 되고, 작가들과 소통하게 되는 경험이 저에게 아주 의미했습니다. 일단 작업실을 벗어나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계기가 감사했죠. 저는 좋은 기관을 만나서 기관 안에서 활동할 기회를 받기도 했고요.

특히 작업 과정에서 잦은 부상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술인으로서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특히 휴업 급여의 보장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요. 그런 보장과 보호들은 다음 단계의 작업으로 나아가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산재보험의 든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미술작가 장성진 퍼포먼스

음악이 주는 한결같은 위로

가수 겸 음반기획/제작자 **최찬윤**

“ 즐겁고 잘 하는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덧 40년이 훌쩍 넘어버린,
음악인 최찬윤입니다. ”

코로나가 찾아간 일상 중 가장 큰 게 바로 공연 무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가진 위로의 힘을 어느때 보다 크게 느꼈던 시기였지요.

수입이 전무했고, 객석은 텅 비었으며, 노래할 수 있는 기회는 끝내 오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날마다 음악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행사를 기획하고 제작했던 일상은 잠시 보류되었지만,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음악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더 치열해진 시간이랄까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알게 되다

음악을 하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관심이 갔어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신청했는데 최초에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졌어요. 가수 수입 명세서로 하는 줄 알고 해당 서류를 넣었더니 증빙이 잘 안되었나 봐요. 다시 보니 작곡가나 행사 기획자 같은 경우는 음반 제작과 콘서트, 관련 행사도 해당 사항이 되어서 추가 서류 제출한 뒤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승인 과정을 기다리며 꽤 공정하고 철저하게 심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뢰감이 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이 된다고?

바쁜 일정 중에 당일치기로 공연 행사를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위에서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또 공연장 안팎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의 필요성은 늘 인지하고 있었고, 단 경제적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필요했지요.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습니까. 합리적인 가격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입하자마자 일어난, 아찔한 사고

공교롭게도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자마자 다치게 된 경우입니다. 누가 다치려고 일부러 산재에 가입하겠습니까. 그만큼 타이밍이 절묘했고, 즉각적이고도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2020년 9월에 가입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9월 24일. 후배 가수들과 발성 연습을 할 때였습니다. 가수들은 복식 호흡을 훈련하기 위해서 평소 초를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씁니다. 촛불을 앞에 두고 일정 거리 앞에서 노래하면, 촛불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요. 숨을 오래 천천히 뱉는 연습을 하며 촛불의 움직임을 통해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평소처럼 초 앞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양초가 다 타서 움푹 팠더라고요. 다 쓴 윗부분을 자르기 위해서 칼로 잘라야 했지요. 정석으로 하자면 촛불을 끄고 식힌 다음, 눕혀놓고 마무리를 하는 편인데 시간도 없고 상황을 보니 간단하게 자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촛불을 자르다가 그만 실수를 한 거예요. 가뜩이나 뜨거운 불에 칼날이 달궈져서 얼마나 큰 흥기가 되었겠습니까.

손목 부위를 크게 베었습니다. 당시 출혈도 많았고, 바로 응급실행을 했어요. 손목 안쪽에만 4바늘을 꿰매고, 일부 근육이 손상되었다고 해서 표면에도 여덟 바늘을 꿰맸습니다. 생각보다 상처가 깊다 보니 신경이 손상되어서 손가락 세 마디 정도가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 평온한 일상에서도 사고는 존재합니다.
다시 기타를 잡기까지,
예술인 산재보험이 힘이 되었습니다. ”

다시 기타를 칠 수 있을까

다치고 나니 정말 암담했어요. 너무 아파서 정신없는 치료 시간을 보내고 나니 더 힘든 건 정신적인 고통과 앞날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가수가 입으로만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손으로 피아노도 쳐야 하고, 기타도 연주해야 하는데 절망적이더라고요. 이대로 손의 감각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 매일같이 물리치료를 받으며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지요.

그러던 차에 문득 얼마 전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치료비의 상당액을 요양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후유증도 있고 상처가 깊어서 40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당장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요양급여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후유증이 있어서 기타 속주는 못 하고 있지만, 곧 회복되리라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가수 겸 음반기획 & 제작자 최진은



예술인이라는 금지

저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었어요.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운동도 즐겼고요. 체력이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한 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예술인들을 위한 산재보험 혜택이 있어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솔직히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게 고독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이렇게 심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와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살펴보세요. 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변 음악인들에게 많은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한테 좋은 계기가 되어서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예술인의 금지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액터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

연극배우 **이정국**



저에게 코로나 시국은 어느 때 보다 조심스러웠지만, 어느 때 보다 진지했으며, 어느 때 보다 뜨거워진 시간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마지막 대사를 끝내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사라지던 시절이 못내 그리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시간 바로, 배우의 시간 ”

연극은 일회성 실연이기에 모든 무대가 고유하고 유일합니다. 관객과 배우의 호흡이 한 공간, 바로 앞에서 만나는 기쁨이 크거든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 시간을 갖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햄릿>에서는 압습한 기회주의자의 폴로니우스 역을, 금기를 다룬 문제작 <문신>에서는 엄마역을, <봄이 오면 산에 들에>에선 탈도 쓰고, 손가락 인형으로도 연기했던 극단 씨어터 백 소속의 이정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술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공연을 못 하다가 최근 기회가 생겨서 대면 공연을 재개했는데, 비록 삼엄한 거리두기 가운데 마스크를 쓴 관객들이었지만 만날 때 엄청난 희열이 있었습니다. 관객의 웃음과 살아있는 반응을 통해서 무대에 선 제가 오히려 힐링이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부터 인형극도 시작하고, 탈을 쓰고 몸짓과 침묵으로만 연기해야 하는 일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인형을 배우로서 전면에 세우고, 그 인형의 조종자로서 뒤에서 연기하는 형태입니다. 관객들에게 제가 아닌 인형이 드러나게 연기해야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동시에 재미있기도 합니다. 배우로 나설 때 보다 섬세한 연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고정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연극배우로 산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애환과 고충이 많은 직업이지만, 반면에 보람은 크달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준비, 예술인 산재보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산재보험은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해외공연을 준비할 때였는데요. 해외공연을 하려면 산재 가입이 무조건 의무사항이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대학로의 공연장에서 움직임 극을 한 적이 있어요. 배우의 움직임으로만 극을 전개하는 방식인데요, 동선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최종 리허설을 할 때였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던 루프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죠. 당시 7개월 정도 일을 못했고, 후유증이 있어서 이후로도 오래 쉬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예술인 산재보험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몇 년 뒤 연극 무대 설치 작업 중에 또 한 번 사고가 있었어요. 철재로 만든 테이블을 옮기다가 손이 미끄러지면서 철판에 손을 베었습니다. 왼손 엄지손가락이 10cm가량 절단되었어요. 바로 응급실에 가서 13바늘 정도를 꿰맸습니다. 사고 이후 한 달 넘게 아무것도 못 하고 쉬었습니다. 공연은커녕 일상생활도 불편할 정도였어요. 치료받은 뒤 2주 뒤에 ‘아, 맞다. 산재보험이 있었구나.’ 그때야 생각이 났어요.

신청하려고 서류를 보니 평소에 접해보지 않은 용어들이 많아서 헷갈렸고, 설명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에 서류들을 들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작성해야 할지부터 차근차근 문의했더니 공단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후 승인이 되어서 치료비의 상당액과 휴업 급여를 한 달 2주동안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힘든 시기에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을 전파하다

사실, 제 주위에는 이 제도를 아는 동료보다 모르는 동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많은 혜택을 보고 나니 고맙고 좋더라고요. 주변에 적극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제 주위에 버티컬 댄스라고 해서 줄을 타는 공연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특별히 많이 권했습니다.

“ 액터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

연극배우의 생활이 공연 중 부상 위험도 있고 힘든 길이지만, 그 어려움은 모두 작품으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배우의 삶은 어떤 경험이트 간에 모든 게 연기에 녹아드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액터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실제로 움직이면 생각이 전환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떠오르며, 몸도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과 몸이 움직이는 배우로 살고 싶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산재보험이 그런 저의 움직임에 한층 더 유연함과 든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인의 삶에 지금처럼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을 삼키는 남자

공연예술가 **허성효**



“ 몸으로 표현하는 직업의 가장 큰 애환은 고질적인 몸의 통증 ”

작은 풍선이 어린이 몸집만큼 커질 때까지 붓니다. 풍선 안에 얼굴을 넣고 자유자재로 퍼포먼스를 펼치죠. 처음 보는 진귀한 묘기에 관객들의 박수가 터집니다. 불막대, 일명 불봉으로 열기를 더하면 휘파람과 환호가 멈출 줄 모릅니다.

저는 불쇼 퍼포먼스와 서커스로 관객을 만나고 있는 공연예술가 허성호입니다.

활활 타는 불로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은 매 순간 위험한 일입니다. 방심하는 모든 순간은 화재로 이어지고요.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공연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관객들과의 호흡 때문입니다. 퍼포먼스가 강하고 신기하다 보니 관객들의 환호가 커요. 그 모습을 보면 다음 무대에 다시 오를 수 있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특히 공연을 보고 가시면서 너무 멋있다, 또 언제 하나며 궁금해하거나, 공연할 때마다 와서 응원해주는 팬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진심으로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볼 때면 울컥하기도 하고, 몸이 허락하는 한 무대에 서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직업의 가장 큰 애환은 고질적인 몸의 통증일 텐데요. 쉬지 않고 뒀가를 들고, 돌리고, 타고, 몸을 사용하다 보니 손목과 어깨 무릎이 자주 아프고, 염좌 때문에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전 불쇼 연습을 하다가 어깨를 다친 적이 있어요. 통증의학과에서 말하기를 손상된 어깨를 치료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 석회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당시 의료진이 이렇게 큰 석회는 처음 본다며 석회가 다 없어지면 의학지에 기재해도 되냐고 물어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통증도 컸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통증 치료는 회당 보통 7만 원 정도였거든요. 자주 가야 해서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긴 치료 끝에 다행스럽게도 석회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을 만난 순간

어깨 치료를 받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죠. 예술인 산재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때였습니다. 산재보험을 몰랐을 때는 실비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치료 기록이 있어서 30%를 공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때 예술인 산재보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2020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후 5개월 만에 일어난 사고

2020년 7월경, 공원에서 씨어힐이란 서커스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자전거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났어요.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이 앞을 주시하지 않고, 제가 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지나가다가 일어난 충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사고였습니다. 손목, 발등, 발꿈치에서 피가 많이 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어요. 골절로 당장 깁스 치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충돌 사고이다 보니 같은 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몸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갔던 병원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원무과에서 일사천리로 알아서 처리해 주셔서 수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의 치료 이후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병원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십지만 적절한 병원으로 옮기는 몇 번의 전원요양신청 과정이 번거로웠습니다. 또 최초 요양승인 기간이 초과하여 연장신청을 알아보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



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만약 산재보험이 아니었으면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였을 텐데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휴업급여가 지원되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불은 언제나 뜨겁죠,
하지만 제 열정도
그 정도는 안 뜨겁겠습니까 ”

연습하다가 옷을 태워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머리 카락까지 흘랑 탄 적이 있고요.

하지만 그 위험천만한 걸 처음 발견했을 때 저에겐 희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말을 버벅거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재미로 시작한 게 마술이었거든요. 막상 시작하니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적성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마술의 길만 12년 걷다가 어느 날 슬럼프가 찾아왔죠. 그 무렵 만난 게 불쇼와 서커스였습니다. 위험을 안고 하는 공연이지만, 그래도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되찾게 되었지요.

아직도 예술인 산재보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가입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을 정도니까요. 특히 예술인들은 몸이 재산입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참거나 치료를 미루다가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모든 예술인이 하루라도 빨리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건강한 예술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의 원조, 아프리카를 만나다!

뮤지션 **신보섭(시디키보)**

“ **젬베의 뿌리는 만딩에서 출발합니다.** ”

언제나 특별한 나만의 무대를 꿈꿔 왔어요. 그래서 판소리를 전공했고 만딩의 젬베를 배웠습니다. 2018년 젬베 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프리카(만딩)음악을 기반으로 한 월드뮤직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이름은 ‘젬베콜라’. 저는 리더이자 젬베연주를 맡은 신보섭이라고 하며, 활동명은 시디키보(sidikbo)입니다.

젬베콜라가 무슨 뜻이냐고요? ‘젬베’는 13세기 무렵 서아프리카 ‘말리 제국’에서 유래된 전통 타악기입니다. ‘콜라(Cola)’는 모두가 즐겨 마시는 대표적인 탄산음료죠. 또 콜라의 주원료로 쓰이는 ‘콜라 열매’(Cola nut)는 만딩 음악에서 존중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콜라 열매를 드리고 스승을 모신 뒤 젬베를 배웠다고 해요. 그 두 단어를 합성해서 밴드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젬베콜라는 2018년 저를 포함한 4~5명이 모여서 젬베(Djembe), 상반(Sangban), 두눈(Dunun), 킨키니(kenkeni)라는 이름도 생소한 악기들로 젬베 음악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음악공연은 물론 아프리카(젬베) 춤 수업의 반주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첫 미니앨범 <The Night>를 발매했고, 2019년에는 젬베콜라 초회 정기공연 “이것은 콜라인가? 밴드인가?”를 가졌고요.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에도 4회의 자체기획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젬베콜라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갈팡질팡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갈피를 잡은 것 같아요.

photo by 김태영



아프리카는 낯설지만, 제가 체험한 그들의 문화는 오히려 한국인에게 친숙한 부분이 있었어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경험한 이미지가 강렬하기에 많은 사람이 빈곤의 이미지부터 떠올리겠지만요. 저는 켈레를 공부하러 부르키나파소나 기니에 연수를 다녀와서 느낀 점이 있어요. 이 문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핍이 되어있는 환대 및 유대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거리 두기에 익숙한 요즘,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경험했던 열정적인 만남, 환대의 온기, 사람 사이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13세기부터 시작이 된 음악의 깊이와 다양함에 대해선 두말할 것 없고요.

고통을 이겨내는 열정

보통 한국 사람들은 플라스틱 젼베를 아실 거예요.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죠. 하지만 현지에서의 제대로 된 젼베는 장인의 손으로 한땀 한땀 통나무를 깎아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젼베 한 대가 무려 7~13kg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 가볍잖은 악기를 옮기고, 세팅하고, 어깨에 메고, 회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연을 해요. 열정적인 공연에 취해 아픈 것도 모르고 있다가 막상 공연이 끝나면 연주했던 열정과 기쁨만큼의 고통이 몰려옵니다.

손의 피부가 찢어진다는지 굳은살이 생긴 곳이 부딪혀 멍이 든다는지도. 근육통이나 인대로 고생할 때도 찾아요. 남모를 고통이죠.



누군가의 조언이 아닌 직접 선택한 예술인 산재보험

2019년 어느 날, 지역 문화 재단에서 한 해의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해 처음 알게 됐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크게 와 닿지 않았습시다. ‘산재’라는 단어의 무게가 아주 큰 사고나 현장에서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해 연말, 한창 공연을 무리해서 할 때였죠. 문득 드는 생각이 만약 이렇게 계속 몸이 아픈 상태면 공연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수입은 줄고, 이제 와서 또 새로운 일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과연 미래를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 막연한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이런저런 걱정이 밀려와 적극적으로 알아본 뒤 가입하게 되었죠.

두 달 후 심상치 않았던 손목

2020년 2월 29일이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기획공연이 있던 날이었는데요,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왼쪽 손목이 신경 쓰이게 아팠습시다.

평소에도 어깨나 양 손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지라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며칠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는 손목을 보며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손목인데에 문제가 있었고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처음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신청했습니다.



“ 순간의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예술인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 ”

예술인 산재보험 신청,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복잡하잖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증빙서류’라는 말만 들어도 만사가 귀찮고 머리가 아픈 유형이라 걱정이 많았는데요. 예술인 산재보험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공연했던 장소 및 포스터, 공연비가 책정되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만 제출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치료받은 병원은 한방과 양방을 둘 다 하는 곳이었는데, 비급여로 된 치료도 많이 받아야 해서 나중에 추가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예술인 산재보험이 없었다면 저야 했을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큰 의지가 되었고, 당장 병원에 누워서 일을 못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특히 코로나로 금전적인 부분이 힘들었거든요. 예술인 산재보험 없었다면 다친 부분이 다 낫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 더 무리하며 무대에 올랐겠죠. 그랬으면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저에게 예술인 산재보험은 순간의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공연 예술인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인이자 켄베 연주가, 공연예술인으로서 더욱 많은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기쁨의 켄베 소리를 전하고 싶어요.



끝으로 아직 가입하지 예술인이 계신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조금 귀찮더라도,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래서 어디 손 내밀 곳이 없을 때 도움을 주는 믿음직한 곳이니깐요.

글씨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서예 작가 **박영제**



붓을 잡으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화선지에 붓질이 한 번 지나갈 때 마다 마음도 지나갑니다. 쓰다 보면 열 두 시간이 훌쩍 지나 있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로, 사업으로, 잠시 다른 길을 간 적도 있지만, 결국 다시 붓을 잡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 초반부터는 아예 본격적인 서예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 화가는 천재가 있지만, 서예는 천재가 없다. ”

서예 강의를 나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붓을 잡고 있습니다. 속된말로 완전히 미쳐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빈틈없이 글씨와 마주하면서도 정작 몸이 아프거나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그 힘든 줄 모르는 신명이 바로 ‘적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또한 필획에 마음을 담아 순간을 불사르는 예술, 그게 서예의 정수입니다. 보통 하루에 30에서 40단을 꼭 채워서 쓰는데요. 종이량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종이값만 몇만 원이거든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썼던 글씨 위에 다시 쓰기도 하고, 젖은 종이를 말렸다가 또 쓰고 하는 식이지요.

물론 서예 명장 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수상도 많이 했지만,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애국가 4절 전문을 5분 안에 쓰는 신기록에 도전 중인데요, 가로세로 35cm가 넘는 큰 글씨로, 35m의 연결된 긴 종이 위에 쓰다 보니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세계에 한국의 미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 붓을 멈춰야만 했던 시간,
예술인 산재보험의 혜택으로
마음 놓고 재활 기간을 가졌습니다. ”

**붓을 멈춰야만
했던 시간**

어느 때처럼 집에서 쉬지 않고 쓰고 있었습니다. 휴식하려고 집 앞을 나설 때였지요.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하필 앞집 화단 화분들이 쌓여있던 곳으로 넘어졌습니다. 8월 한여름 그 삼복더위에 무릎, 오른쪽 갈비뼈 골절, 그리고 오른쪽 다리부터 손까지 통증이 어마어마했어요. 오른쪽은 입술과 볼까지 퉁퉁 부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난국이었습니다. 강도 높은 통원치료와 물리치료를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사고 이후 넉 달가량은 오른손은 거의 못 썼죠. 지금도 오른손으로 힘있게 짚는 일은 못 하고요. 그 당시 치료비 상당액을 지원받았고, 어쩔 수 없이 글씨를 쓰지 못하는 시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누구든 다칠 거라고 생각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닐 텐데요, 저 같은 경우 마음의 든든함 때문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기치 못한 사고로 혜택을 받아보니,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3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만큼의 지원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시스템이 정말 고맙게 생각되고, 뭔가 예술인으로서 보호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 점점 쇠락하는 서예 문화,
그래도 묵묵히 지키겠습니다. ”

섬세한 획에 몸과 마음의 균형을 담아서

서예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어느 예술보다 세밀한 표현의 작업입니다. 붓의 강약, 묵의 명암, 선과 획의 균형. 그 어느 하나에도 쓰는 이의 마음이 묻어나지 않는 게 없거든요.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서예는 심신을 수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집마다 정갈한 글씨로 가훈을 붙이던 시절이 얼마나 정겨웠습니까.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서예부가 있었잖아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서예를 접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는 추세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아예 배우러 오질 않고, 좀 젊은 지망생이 왔다 싶으면 최소 50대입니다. 이렇게 좋은 전통문화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몸은 물론 마음의 운동까지 되는 서예를 아이들이 배운다면 전인교육에도 확실히 좋을 텐데요. 저 또한 한 획 한 획마다 작가만의 표현과 함축된 상징을 담는 일, 그리하여 대한민국 서예를 알리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예술이라는 깊은 유대감

배우 **이다해**



팬데믹 직격탄으로 공연계가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과정과 유대감은 여전히 뜨거운 것 같아요. 늘 해 오던 일상의 루틴이 무너져도, 순간을 빈틈없이 살고 싶은 배우, 이다해라고 합니다.

“ 연기라도, 그 순간의 감정은 진짜니까요 배우로서의 모든 과정이 나의 사명입니다. ”

배우는 작품과 항상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매번 다른 인물로 살지만, 언제나 완전한 그 사람이 되어 있죠. 작품 하나가 끝나고 나면 연인과 헤어지는 기분이거든요. ‘내가 100%를 다 했나’를 반문하며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살면서 나에게 대해 또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런 시간을 때때로 마주할 수 있고, 또 직업으로 삼을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 순간 무대에 있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맡겨진 임무잖아요. 말 그대로 저에게 맡겨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나의 온 힘을 쏟는 것,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최선,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는 시간, 바뀌어야 하는 것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배우로서 보람도 크지만, 한편 힘들다고 느끼는 지점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대립할 때입니다. 크게 생계적인 부분, 배우로서의 역량, 사람 이다해로서 이 문제에 부딪힐 때 민감하게 반응해요. 예를 들어 창작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이 갖춰져야 하잖아요? 또, 무대에서 A를 하고 싶은데 내가 표현이 가능한 건 정작 B일 때, 또 나는 C에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필요한 곳은 D일 때, 그런 것들과의 틈새를 느낄 때 힘들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 차이를 완전히 극복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참고, 견디고, 그 순간 온 힘을 다해 내가 할 방법을 찾는 편이에요. 저는 이걸 스스로 ‘전투력을 쌓는다.’라고 말하는데, 몇 년 동안 전투력을 쌓으면서 이해되는 지점이 생기고, 인정하는 능력도 생기고, 말 그대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배우로서 잘 흘러가고 있다고 위안하면서요.

배우로서 나를 지키는 일이란...

무대 위에 서는 실연자이니만큼 몸을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근육, 인대 등의 손상이 많은 편이죠. 무대라는 공간은 생각보다 많은 위험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연습과 공연 중에 안전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연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은 기본이고,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야말로 배우로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예술인 산재보험' 이야기

2017년, 퍼포먼스형 공연을 시작하고 바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많이 앓았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퍼포머로 활동하고 있는 장르는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퍼포먼스가 높은 공중공간이나 건물 외벽 등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공연을 하다 보니 보험사에서 직업적으로 위험한 일을 한다고 판단하여 가입 거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해 어렵듯이 알고만 있었는데 활동하는 단체의 대표님께서 공연 기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고, 그 시기에 가입했어요. 돌아켜보니 그 대표님이 은인인 것 같아요.

아찔했던 사고, 생각보다 힘든 과정

2020년 6월, 광주광역시에서 했던 연극 작업 연습 중이었어요. 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바닥에 깔린 매트에 발가락이 끼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이 심해서 핀을 박아야 하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발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당시 그 작업을 위해서 광주에 두 달간 머물면서 임시로 거처할 집까지 구해놓은 상황이었던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공연을 못 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감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했어요.



설상가상 예술인 계약문제까지

당시 공연을 주최했던 측에서 산재 처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불공정계약과 계약 지연 문제까지 겹쳐서 산재 승인을 받고 퇴원하기까지 무려 2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근로복지공단과 극단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술 뒤 입원한 상황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제가 양쪽에 연락을 취하며 산재 승인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사고를 겪으면서 산재보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예술인 계약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방에도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수술과 입원으로 청구된 병원비가 500만 원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지만, 산재보험 덕분에 비용에 대한 어려움 없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 작업을 마친 뒤, 산재 전원 신청을 했고, 덕분에 서울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활동을 못 하는 동안 휴업급여를 받아서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고, 여러모로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배우 이다혜

**“ 예술인 산재보험이야말로
배우의 또 다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어쩔 수 없었다지만,
이후의 과정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으니까요. ”**

제가 겪어보니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든든한 점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위안이 된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현재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팀원들은 모두 산재보험 가입자입니다. 제 사고 이후에 주변에서도 많은 자극을 받고 가입한 분들이 많거든요.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나를 지키고 사는 일’이 이렇게나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다른 예술인분들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인 산재보험에 꼭 가입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쉬어가도 괜찮아요,
예술은 속도가 아니라 진지하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니까요 ”**

어쩔 수 없이 잠시 쉽표를 찍게 되었다더라도,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술인의 길은 멀리, 길게 가야 하는 길이며, 얼마나 진심을 전달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저 또한 어떤 사건, 어떤 재난, 어떤 시련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매체를 가리지 않고 유연하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배우, 그래서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선율을 전합니다.

국악창작그룹 <자락> 가야금 연주자,

김아미



친구들이 너도 나도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 가야금에 자꾸 눈길이 갔어요. 그때는 우리 음악의 특별함을 알아서라기보다 가야금이라는 악기의 희소성 때문이었지만요. 별 뜻 없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기 시작한 가야금이 평생 제 앞날을 결정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다 할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즐기는 음악이라는 뜻의 국악 그룹<자락>에서 가야금을 맡고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이기도 한 가야금 연주자 김아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가 종묘제례악이거든요. 제 전공이던 가야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무형문화재 1호라는 의미,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자랑스러운 나라의 문화이기에 4년의 혹독한 기간이 필요했지만, 꼭 이수하고 싶더라고요.

국악창작그룹 <자락>팀은 우리 음악이 좋아서 모인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르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마음으로 한국의 전통 음악을 대중과 함께 즐기고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전통을 알리되 너무 전통의 틀을 고수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강원도에 본거지를 두고, 전국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평창올림픽 때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했던 공연들이 가장 잊을 수 없는 공연이었습니다.

멤버들과는 5년째 함께 무대에 서는 동안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이제는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사이가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 기회는 많이 사라졌지만, 또 시대에 맞게 비대면 공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관객 없이 해 보니 너무 어색했는데, 그것도 자꾸 하니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주변에서 이 길을 그만두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꺼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그 담백하고 깊은 여운

가야금 줄을 마주하고 있으면, 단조로운 것 같으면서도 그 소리와 울림이 늘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아요. 가야금은 연주하면 할수록 깊이가 있달까요. 정갈하고, 담백하면서도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 여운에 매료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서양 악기처럼 수명이 길진 않은데요, 날씨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무 재질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어요.

무거운 가야금을 가지고 연주를 하므로 항상 부상의 위험이 있는 편인데요, 한 번은 무대 위에서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강풍이 불어서 가야금이 부러진 일인데요, 다행히 저는 다치지 않았는데 산 지 1년도 안 된 고가의 가야금이었거든요. 정말 눈물이 멎히더라고요. 물론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와 함께할 악기라서 얼마나 신중하게 고른 악기인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 잠시 빼앗해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예술의 힘!
예술인 산재보험이 함께 해서 든든했습니다. ”

**잠시 빼앗해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예술의 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산재보험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해 알게되어 가입하게 되었어요. 예술인 산재보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일도 있었는데요, 2020년 봄이었죠. 5월 23일경 사고를 당했는데, 무대가 미끄러워서 넘어졌거든요. 넘어지는 동시에 왼쪽 무릎을 꽤 다쳤어요.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진단명은 타박상이었지만 당장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었거든요. 부상 정도를 보더니 병원 측에서 산재 보험으로 바로 연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치료 후에 완치가 되었고,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있을 정도로 다친 게 아니므로 휴업 급여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병원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해 우연히 가입했지만, 혜택을 받고 나니 고마운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할 일에 대비하는 것, 그건 보이지 않는 관객의 또 다른 지지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아름다운 선율을 널리 널리 알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국악창작그룹 <지리산> 기아름 연주자, 김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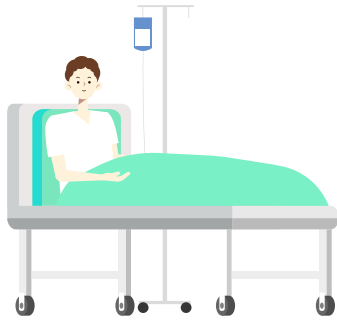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이야기**

02

예술인 산재보험,
이렇습니다.

산재보험의 혜택

요양급여(치료비)



4일 이상 치료(통원, 입원)가 필요한 경우 가장 먼저 신청하게 되는 기본적인 급여로서 진찰부터 치료와 입원, 수술 등의 비용을 지급하며, 본인이 먼저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는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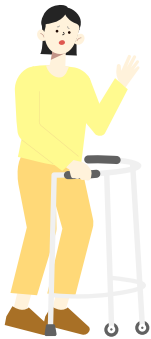
휴업급여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며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대표적인 보험급여]

장해급여



장해 상태에 직면하게 된 경우 장해 등급 심사 후 1~14급으로 차등 지급되는 급여로서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본인이 선택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환자가 자기 힘으로 병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사의 진단에 따라 간병을 신청하면 지급

산재보험 가입 방법

신청절차

01

예술활동증명 및 보험가입신청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

산재보험 가입접수대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근로복지공단

03

가입승인

근로복지공단

04

결과통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보험료고지서 발송

건강보험공단 > 예술인

05

재해 발생시 보험신청/청구

예술인 >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청 (<https://wci.kawf.kr>)

첨부 서류

- ①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
- ②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계약서 또는 예술활동자료,
 보험료 환급 통장사본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선택하시면 예술활동증명
 특례와 산재 보험가입 신청을 동시에 진행 가능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 후 산재보험 신청서 접수까지 최대 14일이
 소요되오니 공연 또는 연습 등 예술활동이 임박할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가입 일정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청구 방법

응급조치 후 병원이송

산재 발생



요양·휴업급여

본인이 직접 산재 청구 신청
초진병원의 의사 소견서 필수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접수

1. 담당 지사 확인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팩스, 우편, 방문 접수

No!

No! 불승인 통지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혹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Yes!

Yes! 승인 통지

접수 후 7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질병의 경우 7일 이상)





새로운 상병이 진단될 경우
추가상병 신청



직업 재활이 필요한 경우
직업 재활급여 신청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신청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신청



재발된 경우
재요양 청구



사망의 경우
장의비·유족급여 신청

산재청구 절차

준비 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서식을 사용하되, 의사가 별지 3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로 산재 청구 가능구분
- 기타 공단의 요청 자료(재해 경위서, 진료기록부 등)

청구서 작성 방법

- 청구서 작성 시 중요사항

- 재해자 인적 사항, 재해 발생 원인 및 상황 등 '예술활동 관련 재해 경위'를 상세히 기재 구분
- 최초 방문하여 치료받은 병원에 요양급여 청구서 내에 의사소견서 작성요청 (병원 담당 의사 작성) 구분
- 진료기록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 별도 첨부필요 (산재 승인 시 소급 지원됨) 구분
- 산재 승인자가 기 부담한 요양비를 청구할 경우 '요양비 청구서' 작성

청구 절차

0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
 [산재 지정 의료기관 여부 확인]

02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해당 병원 의사 소견서 포함 필수]

03

청구 서류 공단 제출
 [팩스, 우편, 방문 제출 가능,
 공단에서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04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 통지
 [질병의 경우 7일 이상]

05

산재승인 후 치료를 위해
 직업활동 중단 시 휴업급여 청구서 공단 제출

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 산재 지정 병원 내 산재 청구 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병원을 통해 산재 청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객소통-민원/조회-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재해자가 직접 산재 청구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산재 승인 이후에는 지정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 산재 승인 이후에는 요양비 청구서 제출로 비지정 의료기관에 기 지급한 요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청구 조건

산재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를 목적으로 한 직업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부상, 질병, 장애또는 사망)와 그로 인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급여 승인 여부

승인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를 목적으로 한 직업예술활동의 업무 수행 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필요 행위(용변 등)- 업무에 따른 필요적 부수 행위,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
승인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 가입 시점 전에 발생한 재해- 보수를 목적으로 한 직업예술활동이 아닌 사적 행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보수를 받는 직업 예술활동 중 발생한 사고
- 동법 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동법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부터 제36조 '자해 행위에 따른 재해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까지를 준용

불승인의 경우

불승인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본부에 심사 청구

-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 원 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
- 심사 청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심사 청구서)로 함
 - ①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②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 내용
 -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④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⑤ 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위 심사 청구에서 불승인이 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혹은 서울행정법원이나 관할 지방법원(행정부)에 제기할 수 있음

요양급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12.> <개정 2020. 12. 29.>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 굵은 선 안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7일
성명(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영문명 대문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9000000000000000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휴대전화: 010-1234-1234 전화번호: 02-123-1234	
재해발생일시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채용일자: 년 월 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직종: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	사업주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제사업주(동업자포함) <input type="checkbox"/> 하수급사업주	
	친인척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친인척()	
신청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업무상 사고 <input type="checkbox"/> 업무상 질병(진폐·CS2 포함) <input type="checkbox"/> 출퇴근 재해			
사업장명	사업주명	연락처(☎)	
사업장관리번호 9000000000000000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주소	재해 발생 경위(별지사용 가능)		
※ 작성방식: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 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 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상황에 맞게 체크			
① 위 재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음주, 폭행 등의 사유로 경찰서에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위 재해와 관련하여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구급·재난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위 재해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목격자가 있는 경우: 성명(), 연락처(), 재해자와의 관계()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진료(치료) 받은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산재 청구전 치료받은 병원		소재지: 주소 작성	
의료기관명:		소재지:	
<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동의)장 >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아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포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포함)에 제출하는 것을 위임·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의료기관)	
※ 첨부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서식)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 재해자

- 산재보험 가입자 본인(재해를 당한 자)의 정보 기재
- 보험가입자와의 관계는 '실제사업주(본인)' 체크

2. 재해 관련 내용

-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해당란에 체크
- 사업장관리번호를 알고 있다면 기재
-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방식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할 것, 목격자 진술도 도움이 됨

* 산재 청구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해야 하며 해당 지사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뒷 면)

다 른 보 상

① 본 장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에 2. []아니오

②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내역(①에서 "예"라고 체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기관) 또는 지급처	첨부서류
			①합의서②판결문(또는 결정문)③영수증④기타

안 내 사 항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 의견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② 재해경위 등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③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에서 사업장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공단 또는 콜센터(1588-0075)에 문의(전화,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급여신청서의 진행 상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통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와 무관하게 통지될을 알려드립니다.

⑥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신고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공단의 부가서비스 홍보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안내 및 조사 목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동의에 거부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동의 거부 시 홍보자료 및 홍보물품 수령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공단서비스 안내 및 홍보 (문자, 전자우편, 감사편지)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의료기관명	5년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단 및 공단과 계약된 수탁기관의 사회심리재활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단 또는 공단과 계약된 수탁기관의 사회심리재활 및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및 제공 목적	이용 및 제공 항목	이용 및 제공 기간
- 사회심리재활(심리상담, 재활스포츠프로그램, 멘토링·희망찾기·사회적응·가족화합프로그램) - 직업재활(원적복귀지원, 직업훈련, 재취업)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의료기관명	3년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해당 페이지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 면)

⑤ 입원	예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사 유	<input type="checkbox"/> 수술 <input type="checkbox"/> 의식장애 <input type="checkbox"/> 외·기기고정 <input type="checkbox"/> 석고붕대고정 <input type="checkbox"/> 절대안정 <input type="checkbox"/> 안정 및 보호 <input type="checkbox"/> 이동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⑥ 통원	예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사 유		
	취업치료 여부(근무 병행치료)	※ 취업치료(근무 병행치료)는 치료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한 상태를 말함(의학적 판단) <input type="checkbox"/> 취업치료가능 <input type="checkbox"/> 취업치료 불가능 : 향후 ()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	
⑦ 수술	수술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수술명
	수술(예정)일	년 월 일	수술의뢰기관 (<input type="checkbox"/> 본원 <input type="checkbox"/> 타원())
⑧ 계속 동반 치료가 필요한 기존질환명			
⑨ 집중재활치료의 필요 구분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재활치료로서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②6개월 이내의 뇌혈관, ③3개월 이내의 척추·건관절·주관절·완관절·수부·고관절·술관절·족관절·족부질환자, ④해당기간 도 과했으나 재활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사람에게 제공, 단, 열좌, 타박상 등 경미한 상병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일정기간 집중재활치료 곤란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내 치유 또는 13급 이하의 장애 예상 <input type="checkbox"/> 집중재활치료 필요(또는 예정) <input type="checkbox"/> 집중재활치료 질환자 아님 <input type="checkbox"/> 상태 악화 또는 수술 예정 <input type="checkbox"/> 집중재활치료 불필요()		
입진, 병행진료가 필요한 진료과목		심리상담 필요 (개인별 심리상담 지원) <input type="checkbox"/> 필요	
전원	전원할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원사유:	※전원이란 생활근거지 또는 전문적 치료 등을 위해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원(예정)일자	년 월 일	
<첨부서류>	1.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자료 및 결과지 각1부. 2. 절단, 화상, 최열창, 욕창은 환부 칼라사진 3.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의 근거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응급진료 또는 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 및 각종 검사 결과지 각1부(뇌영상 검사, 뇌파 검사, 심전도 검사, 정신상태 검사, 심리학적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의료기관 주소:	년 월 일		
전화번호:	■ 산재 관리의사 여부: <input type="checkbox"/> 산재 관리의사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팩스번호:	의사면허번호: 호		
의료기관명: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	(전문: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자문의사 소견			
	년 월 일	자문의사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 ²)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산재 승인 이후 치료를 위해 직업활동이 중단, 휴업 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8.12.12., 2019. 8. 12., 2020.12.04.>

산 재 해 보 상 보 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휴업급여		청 구 서	
[] 상병보상연금			
<small>* 본인 상황에 맞게 체크</small>			
<small>*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small>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휴업, 상병 : 7일
산 재 근로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재해발생일	0000년 00월 00일 <small>*요양비 청구 일자와 동일한 재해발생일</small>	
수령 계좌	수령계좌를 변경 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small>* 보험급여 수령 계좌 작성</small> (예금주 :) [] 보통계좌 [] 보험급여 전용계좌(희망지킴이-암류금지계좌)		
청구 기간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00 일간)		
확인 사항	①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취업함 [] 취업하지 못함 ②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 [] 예 [] 아니오 ③ 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외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습니까? [] 예 [] 아니오 ※ 배상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역을 작성해 주세요.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
		첨부서류 합의서, 판결문, 영수증, 기타서류 등	
자동 지급 신청	2회차 지급분 부터(휴업급여는 입원요양기간에 한함) 자동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지급을 신청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위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산재해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청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small>*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서류 제출시 작성</small>			
본인은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를 아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vel.or.kr)를 통하여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small>210mm×297mm(신문용지 54g/m²)</small>			

1. 산재근로자

- 기본 인적사항 기재, 재해발생일은 요양급여 신청서와 동일한 재해발생일 기재

2. 청구기간 및 확인사항

- 해당하는 요양기간 작성
-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은 취업한 시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 위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부분 휴업급여 대상인지 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별지 제7호 서식] <뒷면><개정 2018.12.12., 2019.8.12>

1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병보상연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8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진단서 2.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변동된 경우 : 별지 제9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서 		
2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닌 경우, 요양기간 중 취업한 시간·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에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이란 재해 당시 사업(원래 직무 및 다른 직무 포함)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취업 뿐만 아니라 경영업 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당이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서비스 안내		
공단에서는 신재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자동지급	입원환자 2회분 이후 휴업급여 및 상병연금은 1회 최초의 청구로 자동지급이 되며, 별도의 청구 없이 2회분 이후부터는 자동지급됩니다. ※ 입원하다가 통원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 우선지급	휴업급여청구서의 처리기한내에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재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 우선 지급하고, 평균임금 산정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차액을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p>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급여청구" 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p>		
공단에서는 신재근로자의 재활의욕 고취 및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 심리 재활	재활스�포츠 지원	상병 및 장애 부위에 대한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수영, 헬스, 요가 등 스포츠 비용 지원(최대 3개월)
	심리상담	신재근로자의 불안, 우울, 가족 및 대인관계 등 어려움 해결을 위해 개인별 심리상담 지원
	희망찾기프로그램	요양 중에 있는 신재근로자의 요양단계별(입원, 통원) 집단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심리안정 지원
직업 재활	사회적응프로그램	미취업 상태에 있는 신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생활 및 직업복귀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지원
	원직징복귀 지원	원직징복귀를 희망하는 신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재활상담, 소견서 무료발급등 의 서비스 제공 신재근로자(장애등급 제12급 이상자 또는 예정자)를 원직징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적용훈련(요양중에도 인정) 또는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재취업 지원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재근로자(장애등급 제12급 이상자 또는 예정자)에게 직업훈련 지원 및 취업 알선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요양비 청구서 ①

[산재 승인자가 기 부담한 요양비를 청구할 때 사용하는 서식]

[별지 제 10호 서식] <개정 2017. 10. 17.><개정 2018. 7. 17.><개정 2018. 12. 12.><개정 2019. 5. 2.> (알 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청구서		처리기간 10일
①사업장관리번호 900-00-00000-0		②사업개시번호
③성명 홍길동	④주민등록번호 900000000000000000	⑤직종 예술인
⑥주소 0301818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 010-1234-1234		
⑦재용연월일 *계약서 상 계약시작일 년 월 일	⑧재해발생일시 000000년 00월 00일 00시	
⑩청구구분 [V]요양비 []간병료 []이송비 []보조기 []기타	상병부위 및 상병명 * 뒷면 소견서 참조	
⑪기간 *첫 치료일 ~ 청구서 작성일 이전까지 치료기간	[]임원 (일), 통원 (일)	
⑫산출내역(별지사용가능)	*진료비 상세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 첨부	
⑬청구액 000,000 원	⑭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000000-00-000000	○ ○ 은행
간병료를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의 한 간병서비스 수혜여부 표시 [V]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 관련 증빙서류 첨부	
본 제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⑮수령일자	⑯수령금액
	⑰보상 또는 배상내역(수령근거)	
첨부서류 1. 합의서 2. 판결문(또는 결정문) 3. 영수증 4. 기타		
⑱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선택사항)		
공단의 부가서비스 홍보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안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이용 내역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홍보문자, 전자우편 전송, 감사편지 발송 등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주소)	5년
* 위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동의에 거부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및 보 험급여 청구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동의 거부 시 홍보자료 및 홍보물품 수령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통지는 동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와는 무관하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홍길동 (홍길동인)	0000년 00월 00일	
전 화 번 호 : 02-123-1234	휴 대 폰 : 010-1234-1234	E-mail :
대 리 인 : 홍길동 (홍길동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서류 제출시 작성 위 임 장		
위 본인은 요양비청구서를 아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포탈서비스 (total.kcomwel.or.kr)를 통하여 제출할 것을 위임·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 홍길동 (홍길동인)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비: 영수증, 병원의 경우 진료비 상세내역서, 약국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등 · 간병료: 영수증(가족의 경우 제외, 간병인 자격증 및 수료증(전문 간병인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상태 확인 가능한 기록지(진료기록, 간호기록 - 통원 제외) 등 · 이송비: 영수증(버스, 전철 등 사실상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이송료내역서, 의료기관의 통원 요양 사실 확인서 등 · 보조기: 세검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재활보조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등 	
* 필요시 이외의 자료를 담당자가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참고)사항(요양비 청구서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한함)		
· 별지를 이용하여 재해검위를 유하원칙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단은 재해자의 요양료신청 사실을 보험가담자사업 주에게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보험가담자사업주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므로 그 확인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한

1. 인적사항 및 기 부담한 요양비(치료비) 청구액과 계좌정보 기재
2. 청구서외 진료기록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 등 추가 첨부
3. [산재 승인 이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사로 제출

요양비 청구서 ②

(의료기관에 작성 요청하여 요양비 청구서에 첨부)

[* 해당 페이지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작성 요청] (뒷 면)

소 견 서 (의료기관 작성용)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재해발생일			년 월 일	
④ 상병명과 상병코드	구분	진단명	상병코드(KCD)	구분	진단명	상병코드(KCD)				
	주상병			부상병						
	부상병			부상병						
	부상병			파생상병						
	부상병			파생상병						
⑤ 기존질병 및 장애상태										
⑥ 요양기간	입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통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취업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재가요양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⑦ 간병범위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의식소용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5. 재표면적(체표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결산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골절로 인한 간인장치 또는 식고분해 용출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7. 해부시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요강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재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흡사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가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10.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간병 필요정도 소견	* 보행, 일상생활 가능 여부 등 간병이 필요한 정도 및 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⑧ 간병확인	간병종류 <input type="checkbox"/> 1인 간병 <input type="checkbox"/> 1인이 2인 이상 간병 (간병인 ()명 대비 환자 ()명) () 일간								
간병기간	* 단, 회복실, 중환자실 사용기간이나 완화의료(호스피스)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기간은 제외됨 회복실 또는 중환자실 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사용기간: ~) 완화의료(호스피스)서비스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이용기간: ~)									
	간병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주 소	□□□□□□□□	환자와의관계			
자격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input type="checkbox"/> 간호조무사 <input type="checkbox"/> 요양보호사 <input type="checkbox"/> 요양보호사 외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간병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사용 가능										
⑨ 이송비 (통원확인)	총진료일수	. . . ~ . . . () 일간) 실통원일수								
	산출내역	원 (세부내역은 별지작성가능)								
⑩ 의지·보조기대	품명(분류번호)	수량	회수	구입가격	원					
	필요소견									
⑪ 기타 (특수촬영등)	품명 (분류코드)	회수	가격	원						
	※통원기간중 위약가능 여부 및 시기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신재관리의사 여부: []신재관리의사 []해당없음									
전화번호:	의사면허번호: 호									
의료기관명: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	(전문과목: 호)							
자문의 소견			성 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자문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 80g/㎡)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이야기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정희섭
기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감수	권동희 공인노무사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초판 발행일	2020년 12월 22일
홈페이지	www.kawf.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 2층
전화	02-3668-0200
팩스	02-3668-0298
제작	달토끼프로젝트 02-715-2040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이야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791197 296345 13600
ISBN 979-11-972963-4-5